

연변은 지금... 관광객 향한 민속공연 시즌

‘민예, 민속, 민풍’을 주제로 7월부터 12월까지



8월 1일, 연길시문화관 연길시민속예술단의 배우들은 연길공항 대합실에서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운 문예공연을 선사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곡조, 아름다운 무용과 의상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에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너도나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박수갈채를 보냈다.

북경 관광객 리선생은 안해와 함께 노래소리에 매료되어 공연 틈틈이 배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는 “휴가를 보내려고 연길에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기 드문 민속공연을 감상하게 되어 아주 행운이다. 격정적이고 즐거우며 아름답고 화려한 공연은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상상했던 연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래와 춤 등 13개의 문예종목이 펼쳐졌다. 연길시민속예술단 책임자 주현일은 “최근 연길공항과 백화점, 여러 거리 등에서 공연하게 될 예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연변 특색의 문화향연을 선물하고 싶다.”고 표했다.

이번 공연은 ‘민예(民艺), 민속(民俗), 민풍(民风)’을 주제로 연변의 우수한 민간문화단체들이 기증으로

내려가는 ‘백단합동공연(百团汇演)’행사의 일환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와 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의 주최, 각 현(市) 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과 연변군중예술관의 주관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각지에서 펼쳐지게 된다. 공연은 전통 명절과 법정휴일을 최대한 리용하여 브랜드 군중문화활동을 혁신하고 융합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의 우수한 군중문화단체들을 조직하여 사회구역과 거리, 관광지 및 농촌에 내려가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공연에는 연변의 20개 단체가 참가하며 도합 40회의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연길시에서는 3개 단체가 참여해 6차례 공연을 펼친다. 공연에 참가한 민간문화단체중에서 우수한 단체를 성에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전국 ‘백단합동공연’집중전시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연길시문화관 연길시민속예술단의 배우들은 8월 1일 연길공항에 이어 이튿날 연길 백리성에서도 쇼퍼를 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문예공연을 선물했다.

/ 오건기자 / 사진 허철특약기자



연길,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명절선물

웅군우속은 연길 시민들의 훌륭한 전통이다.

8월 1일, 연길시정부는 부르하통하 강변에서 드론 공연을 선보여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송고한 경의와 ‘8.1’건군절 선물을 전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7돐을 경축하고 웅군우속, 용정에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양했다.

이날 밤 8시경, 공연은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7돐 경축’이라는 글자가 적힌 드론편대의 조형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8.1 군위장과 ‘1927’, ‘2024’ 수자가 적힌 시계 조형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공연을 주제로 이끌었다. ‘중국꿈 강군꿈’, ‘우리 인민을 사랑하고 우리 군대를 사랑하자’는 글밭에 이어 항공모함, 전투기, 편대비행기, 8.1 군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관중들의 환호와 함께 ‘당의 지휘에 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작풍이 우량하다’, ‘전국쌍용모범성 군민단결의 새 장 열어나가자’, ‘조화롭고 아름다운 행복 연길’ 등 채색 자막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마지막으로 총을 든 군인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두마리, 그리고 ‘맑은 사랑 오직 중국을 위해’라는 조형으로 공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 정현관기자 / 사진 리군광

